

## 한·말레이시아 경제인 만찬간담회 연설

압둘 라흐만 마이던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저의 기대는 상당히 큼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경제협력이고, 그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 가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최근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이 눈부십니다. 지난해 7%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출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푸트라자야에도 가 보고, 세렘반 지역도 둘러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역동

적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동아시아 전시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 2020’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국의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미 두 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가 ASEAN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에게는 최대 교역국가입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아홉번째 교역대상국이고, 우리는 말레이시아에게 여덟번째 교역대상국입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 압둘라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압둘라 총리의 이슬람 세계에서의 지도력, 그리고 ASEAN 지역에서의 지도력, 그 지도력을 넘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대해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둘라 총리와 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부분의 논의를 경제문제에 맞추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좀더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두 나라는 IT·BT와 에너지·자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방위산업과 건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개의 협약들을 서로 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소기업협력약정 등 6건의 약정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증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내일 서명하게 될 ‘한·ASEAN FTA 기본협정’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한국과 ASEAN,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때로는 세계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공전략은 여러분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각자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람반에 있는 한국투자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에는 세람반 단지가 말레이시아 GDP의 1.5%를 생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단지를 방문해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1.5%가 아니라 2%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정도 걸려서 오는 동안에 0.5%포인트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소중한 정보는 만났을 때라야 비로소 교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받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후 중단된 양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다시 되살리기로 오전에 여러분이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눈 대화와 건설적인 제안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 확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의 만남에 그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국 정부도 여러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저에게는 매우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